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관계부서 회의 진행 모습.



강매 배수펌프장 내부 전경.

# 강매동에 대규모 배수펌프장 신설... 재해 취약계층 골든타임 확보 잔걸음

### 1894억 규모 5개 사업 추진... 두포천 정비사업 본궤도 지하차도등 44곳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집중관리 민·관 협력네트워크등 24시간 재난대응 시스템 가동

경기 고양시가 해마다 빈번해지는 여름철 극심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재해 예방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침수 피해가 잦은 저지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해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빈틈없는 보호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 핵심과제로 생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재해 예방 사업 현장과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예방위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구 정비사업'은 지난 3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이 사업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가운데 최고 등급인 '가' 등급으로 지정돼 재해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것으로, 대규모 배수펌프장 신설과 우수지 확장 등 핵심으로 한다. 사업 완료시 분당 4060톤 배수능력을 갖춘 대용량 고효율 펌프와 약 4만7400㎡ 규모 우수지를 구축해 집중호우시 성사천 수위를 신속하게 낮춰 도심 침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주거지 및 농경지 등 저지대 침수가 빈번했던 관산동 두포천 일대 정비사업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총사업비 468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현재는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특히 관산지구의 재해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형적 특성과 토지 이용 상태 등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비 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위 재해대책기간 대비 배수펌프 시험가동. 가운데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점검. 아래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역량 강화 교육.

● **호우대비 중점관리시설 정밀 진단**  
지난해 8월 고양시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려 덕양구 능곡동과 행신동 등 일부 지역이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는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빗물받이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반지하주차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급경사지 ▲아열상 등 침수 위험 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상태 파악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산사태 위험지역 등 총 44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한다.

위기 상황 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통제 기증을 구획적으로 정량화했다. 각 지역의 지형과 주거 특성을 반영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 한층 정교하고 세밀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를 사전에 명확히 선제적 골든타임내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직능단체 회원들을 1대1 대피 조력자로 지정해 현장 중심의 인적 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

● **동행정복지센터 현장대응능력 강화**  
최일선 재난 방어선 구축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서 시민을 마주하는 최일선 기관인 동행정복지센터의 재난 대응 능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집중호우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통시·발견·진단·대응·복합·지원·회복의 7단계가 즉각적으로 판단해 발령할 수 있는 '주민대피 명령권'을 부여했다. 특히 인명피해 위험이 극대화되는 야간이나 새벽 등 취약 시간에 재난이 발생해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릴 경우 지역내 설치된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상황을 즉시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인사이동이나 비상근무자 교체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 혼선이 없도록 각 동별 지형적 특성에 맞춘 상황별 세부 역할과 침수위험 지역특색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관리카드와 행동요령을 4개 전통에 비치했다.

● **여름철 24시간 재난대응 시스템 본격 가동**  
여름철 호우·태풍 피해 방

지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5단계 비상근무 체계에 따라 재난대응담당관과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에 돌입하며, 비상 단계에 따라 현장과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인력을 정면 배치한다.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경찰, 소방,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도 유지한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현장 연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도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력과 구조·복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재단과 인정보안단 등 다양한 직능단체 인력을 적극 활용해 위험지역을 예찰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입체적인 재난 예방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시 관계자는 "기후온난화로 인해 연례, 어디서, 어떻게 재난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올 여름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흡족하고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를 현장까지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민정홍 기자 mjh@sinimilbo.co.kr

## 중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외 최대 취재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언론의 시작은 언제나 연합뉴스입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